

입학사정관 전형이 요구하는 인재상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뿐 아니라 개인 환경,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대 수시 입학사정관 특별전형에 원서를 낸 학생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화려한 스펙보다 성실·지속성 중요

올해 입시에서는 105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또는 참여 전형 등을 통해 수험생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는 각 전형마다 다양한 인재상을 요구하므로 본인이 어떤 인재상에 적합한지를 찾고,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의 도움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상을 살펴보았다.

학생회장보다 동아리 활동 높은 평가 글로벌 마인드는 열정·포부에 짐수

◇열정적 리더십 자질이 돋보인다면 = 대다수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로서의 자질·사회성·성실성·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육성을 가려내고 있다.

이력의 화려함이나 리더로 활동한 조직의 규모보다는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에 더 관심을 갖는다. 한 예로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평범한 학생회장이었다면 학생보다 소규모 동아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 학생을 높이 평가한다.

이 유형에 적합한 대학은 ▲가톨릭대 글로벌리더 ▲건국대 KU리더십 ▲경원대 리더십 ▲경희대(서울)네오르네상스 ▲동국대(서울)리더십 ▲서울여대 바름에비지도자 ▲성균관대 리더십특기자 ▲성신여대 성신리더십우수자 ▲아주대 아주리더십 ▲인하대 리더십봉

사 ▲중앙대(서울)리더십우수자 ▲한국외대(서울)리더십 및 사회통합 등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연구에 흥미가 있다면 = 입학사정관 전형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수험생의 창의력과 잠재능력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수상실적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활동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는지, 결과를 통해 어떤 능력과 태도 등을 갖게 되었는지 인과관계 속에서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해 다수의 수상실적을 얻은 화려한 스펙의 학생보다, 실생활에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수험생이 오히려 잠재능력 있는 창의적 인재로 평가 받을 수도 있다. 이 유형에 적합한 대학은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 ▲경희대(서

울) 네오르네상스 ▲단국대(죽전) 창의적인재 ▲서울시립대 포텐셜마니아 ▲성신여대 성신챌린저 ▲아주대 르프다이아몬드 ▲연세대(서울) 진리자유, 울산과기대 학교장추천 ▲인하대 인하TAS-P형인재 ▲중앙대(서울) 다빈치형 인재 ▲한양대(서울) 미래인재 등이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면 = 본인이 세운 목표와 동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활동에 참여한 인재는 자기주도형 인재에 적합하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주도형 인재는 독립성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잠재 능력이 있는지,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유형에 적합한 대학은 ▲건국대 KU자기추천 ▲서강대 학교생활우수자 ▲서울여대 일반학생 ▲성신여대 자기추천자 ▲숙명여대 자기주도학습우수자 ▲아주대 르프다이아몬드 ▲연세대 진리자유 ▲중앙대(서울) 다빈치형 인재 ▲한국외대(서울) 자기추천자 ▲한양대(서울) 학업우수자 등이다.

◇한 우물만 꾸준히 파고 있다면 = 일부 대학에서 기존 특기자 전형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간혹 특기자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특수재능, 특기자인재 전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요구하는 특수재능 인재란 한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기의 실적을 달성한 인재다.

이 유형에 적합한 대학은 ▲고려대 과학영재특별전형 ▲서강대 글로벌과학리더/특기자전형 ▲서울여대 바름 ECO ▲성균관대 동양학인재/사회봉사특기자 ▲성신여대의과학인재 ▲울산과기대 과학영재 및 글로벌리더전형 ▲이화여대 미래과학자 ▲인하대 과학영재/특별재능 및 특이경력 ▲한양대 공학인재/과학재능우수자/발명재능우수자 등이다.

◇세계 무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면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글로벌 인재란 실제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와 능력을 지닌 인재상이다. 이는 단순히 외국어를 잘 하거나 공인외국어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재능과 열정을 갖고 세계를 이끌어갈 포부와 마인드를 가진 학생을 말한다.

이 유형에 적합한 대학은 ▲가톨릭대 글로벌리더 ▲경희대(서울) 네오르네상스 ▲고려대(서울) World-Wide인재 ▲성신여대 성신글로벌인재1 ▲숙명여대 글로벌여성인재 ▲숭실대 국제화1 ▲이화여대 이화글로벌인재 ▲한국외대(서울) U-PEACE국제전문가/글로벌인재, 한양대 국제학부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마트폰 전공·예술치료학과 첫 등장 ○○○헤어과...전문가 이름 딴 학과도

2011학년도 전문대 신설 이색 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11학년도 전문대 수시입학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각 학교에 신설된 이색학과가 수두룩하다.

올해 대세인 스마트폰과 관련한 학과 신설된 점이 먼저 눈길을 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잇단 등장으로 '내 손안의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요즘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폰 전공'이 두 곳에 생겼다.

백석문화대학 '인터넷정보학부 스마트폰콘텐츠 전공'은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웹소피, 게임, 사진, 영화 등 스마트폰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잡았다. 졸업 후 진로는 모바일 콘텐

츠, 앱 개발업체 등이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폰전공은 학습 인프라가 자랑거리다. i-Mac 30대를 갖춘 실습실을 확보했고 신입생에게 앱 개발을 위한 아이패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품질관리 전문가, 미디어 서버 운영자 등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두원공과대학은 방송, 통신, 물류, 의료복지 등으로 범위를 넓힌 스마트IT과를 신설했다. 이 대학에는 '자동차 손보과'도 생겼다. 교통사고시 자동차 대물사정 전문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예술대는 요즘 뜨는 분야인 예술치료 전문가를 키울 통합예술치료과를 만들었다. 전국 재활병

원, 사회복지기관과 노인요양원 등 실버산업 쪽으로 진로의 폭이 넓은 전공이다.

영남이공대는 전문가의 이름을 딴 브랜드학과를 신설했다. 국내외 200개에 육박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와 협약을 통해 '박승철헤어과'를 신설, 철저한 실무교육을 한다. 졸업과 동시에 전문 디자이너급으로 입사할 수 있고 일본 아미노 미용예술단기대학과 인턴십도 연계돼 있다.

이밖에 청강문화산업대의 '에코스타일리스트' '에코디자이너' 전공은 친환경, 유기농, 생태체험 개념에 착안한 학과로 파티플래너, 플로리스트, 유기농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중앙도서관 새 단장

도색·바닥 교체 등 시설 개·보수 재개관

광주시교육청 산하 중앙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최근 재개관했다.

1991년 문을 연 중앙도서관은 건물 노후화와 취약한 시설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작지 않아 지난달 말 대대적인 개·보수에 들어갔다.

시 교육청은 사업비 2억여원을 들여 도서관 내외부 도색과 바닥 교체, 특별 학습실 리모델링, 시청각실 방음공사, 지하 휴게실과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를

마쳤다.

시청각실 방음 공사로 노래교실과 악기 강좌 개설이 가능하고 특별 학습실도 개선돼 청소년들의 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중앙도서관장은 "지역사회 문화센터이자 공공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며 "최고의 서비스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인 한글 학습자

문해 교육 백일장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성인 학습자를 격려하고자 '전국 문해(文解) 교육 백일장'을 열기로 하고 30일부터 9월15일까지 참가자를 접수한다.

'세상과 소통하는 힘, 문해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문해교육 백일장 부문, 문해교육 프로그램 부문, 문해교육 자치단체 지원 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백일장 부문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재한 외국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배움과 인생'을 주제로 한 시와 수기, 자유 주제의 편지글을 모집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문은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 강사들이 직접 만든 문해교육 홍보 UCC가 응모 대상이다.

또 문해교육 프로그램 자치단체 지원 부문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성과, 우수사례 등을 공모한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교과부 장관상(10명), 평생진흥원장상(51명) 등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15일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통합생물학회 회장

광주과기원 김도한교수



유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학회 중 하나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외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김도한 교수(59)가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통합생물학회 이사회에서 제37대 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의 임기는 2011년부터 1년간이다.

한국통합생물학회는 1957년 창립됐으며, 현재 1000여명의 회원을 보

인 김도한 교수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에서 개최된 한국통합생물학회 이사회에서 제37대 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의 임기는 2011년부터 1년간이다. 한국통합생물학회는 1957년 창립됐으며, 현재 1000여명의 회원을 보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